

# EU권 국제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FP) 7차 국가별 참여현황 분석

김진숙\*

\*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e-mail : mktjskim@nsu.ac.kr

## Participation in EU FP 7 Regional Secondary 2007-2009

Kim, Jin-Suk\*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einess, Namseoul University

### 요 약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서 FP(Framework Programm(이하 FP)을 1050년대 이후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6년 단위로 실행되고 있으며 현재 2011년에서 제 7차 2007년에서 2013년까지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향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제 8차 FP의 토대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FP참여를 통한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 7차 FP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EU의 제 7차 FP의 참여현황을 구체적으로 EU회원국과 비 회원국들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도록 한다.

### 1. 서론

### 2. FP 7차 참여현황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서 FP(Framework Programm(이하 FP)을 1050년대 이후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6년 단위로 실행되고 있으며 현재 2011년에서 제 7차 2007년에서 2013년까지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향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제 8차 FP의 토대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FP참여를 통한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 7차 FP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EU의 제 7차 FP의 참여현황을 구체적으로 EU회원국과 비 회원국들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도록 한다. 제 2장에서는 FP 7차 참여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 3장에서는 비 EU회원국들의 참여현황 제 4장에서는 기관별 참여현황을 살펴보았다.

#### 2.1 국가별 참여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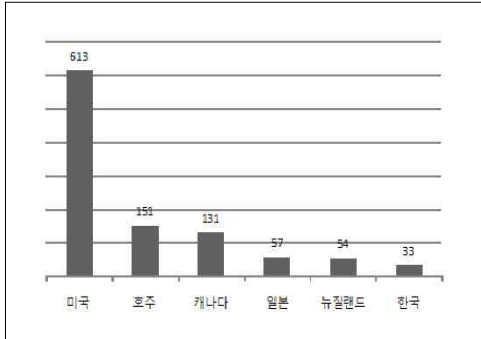
FP 참여 자격은 EU 회원국, 준회원국 JRC 그리고 유럽 관련 국제기구가 일차적인 대상에 해당되며, 예산 또한 EU에서 직접 지원된다.

제 3국가들에게도 참여 자격이 부여되나, 분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럽권 참여자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소속국가 구분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된다(참고 표 1).

#### 2.2 국가분류별 참여 현황 (2007-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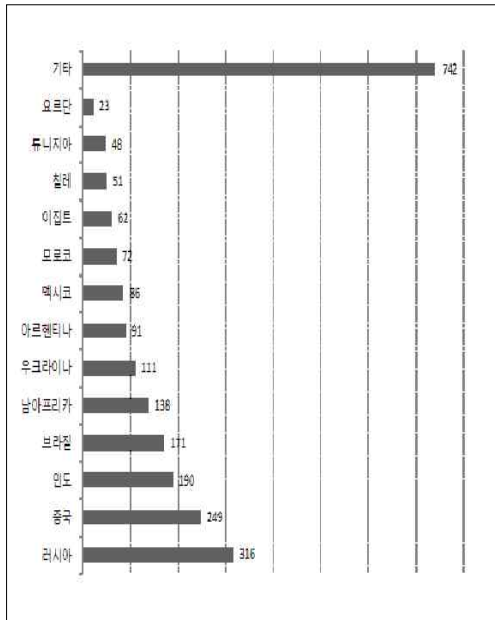
2007-2009년간 총 51,397개 기관이 FP에 참여하였다. 이 중 EU 회원국 소속 기관이 43,857개로 전체 참여기관의 85%에 해당한다. 준회원국 소속의 참여기관은 4,151개이며, 비 유럽권 제 3국 소속 기관 또한 3,389개로 준회원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극적 참여하였다(참고 그림 1).





[그림 4] FP 7 산업선진국 참여 현황(2007-2009)

국제협력대상국 중 러시아가 316개 기관이 참여하여 FP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249개) 인도(190개)가 러시아 순으로 되어있다.



[그림 5] FP 7 국제협력대상국 참여 현황(2007-2009)

브라질(171개), 아르헨티나(91개), 칠레(51개)와 같은 남미 국가들의 적극적 참여가 돋보이며, 남아프리카(138개), 이집트(62개), 튀니지아(48개)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활발하게 EU와의 기술협력을 위하여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FP 참여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참고: 그림 5).

예산 수탁 규모로 볼 때,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산업선진국들은 원칙적으로 연구비를 자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협력대상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613개)이 러시아에(316개) 비하여 거의 두 배 가까운 과제에 참여를 하였으나, 수탁 예

산은 오히려 러시아가(39백만 유로) 미국의(22백만 유로) 거의 두 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현저히 높은 참여 수준을 보이고 있는 호주, 캐나다 또한 수탁 예산은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4. FP 7차 FP 기관별 참여현황

2009년 대학이 전체 선정과제의 38%를 차지하며 가장 활발한 참여를 보였고, 예산 수탁은 대학 29%, 연구기 23%를 차지하고 있다. 7차 프로그램에서 산업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난 15년 간 꾸준히 감소 추세(FP4 39%, FP6의 31%, FP7에서는 25%)를 볼수 있다. 산업계의 FP 참여 동기는 예산지원 보다는 국제 R&D 네트워크 참여, 지식 창출, 전략적 장기 협력 파트너쉽 구축, 기술 표준화 선점 등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FP가 학술적 탁월성을 갈수로 강조하는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산업계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참여 동기 또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 참고문헌

- [1] Statistical overview of FP7 Implementation in 2009 (EC internal document, 2010)